

현장체험 학습장으로서의 도시 묘지 활용방안

이숙미* · 오충현**

*동국대학교 대학원 바이오환경과학과 ·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교육적으로 추구하는 인재상은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인 인물이다. 이와 같은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직·간접적인 체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처럼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실제의 장면에서 관찰하거나 조사하면서 전개하는 학습방법으로서,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07).

현장 체험 학습은 첫째, 자연적, 사회적 현상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찰함으로써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자주적인 학습 태도를 향상시킨다. 둘째, 학생들로 하여금 생생한 사회 현상에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하여 폭넓은 경험을 시킴으로써 사회적 태도나 능력을 육성할 수 있고, 사회인으로서의 행동 양식을 체득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환경에 대한 통찰력을 깊게 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사고력 및 창의성을 신장시킨다. 넷째, 교사와 학습자가 공동으로 계획·실행·평가 등의 제반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의 주체자가 되도록 하고 교육적 경험을 풍부히 하여 지식을 심화·확대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자연적인 호기심을 유발하고 학습 의욕을 자극하여 학습이 오래 지속되도록 한다. 여섯째, 실제 사회생활의 장에서 학습을 함으로써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학생의 사회성을 증진시키며, 공동작업 및 협동학습 등을 통하여 협동정신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 일곱째, 현장 체험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전 과정을 통해 기획력을 기르고 연구심, 탐구심, 지적 호기심을 배양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07).

이렇듯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의 공간을 교실 밖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현장, 사회와 문화의 체험, 자연의 체험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풍부한 감성과 견문을 넓히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현장체험학습의 장은 한정되어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도시개발로 사라지고 사회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녹지가 훼손되거나 감소하였다. 물론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도 훌륭한

교육의 장이지만 가까운 지역사회 내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현장이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공동묘지는 인간의 삶을 마감하는 공간이자 가족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어느 지역이나 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용되고 있는 공간이며, 획기적인 장법이 개발되지 않는 한 향후 수 십 년 혹은 수 백 년 지속적으로 이용될 공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묘지는 도시 내에서 기피와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이면서 상대적으로 교육적 활용도가 낮은 도시묘지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장소로 활용되는 국내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지역사회의 현장체험학습장 활성화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현장체험학습 활용사례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학교가 제한적인 학교 내 인적·물적 환경을 포함해서, 학교 밖의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시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지역단위의 교육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채택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장소로 활용되는 자원에는 자연환경, 인문환경이 있다. 김성경(2004)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회교과와 연계하여 양재천의 동식물상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호기심이 증진되었으며, 지역 환경을 익히고,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따라서 지역의 소하천이 생태학습과 환경교육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변성우(2010) 또한 지역하천인 홍제천이 인문지리, 자연지리적인 요소를 지닌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될 때 지리적인 안목과 교과의 이해, 애호심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정재승(2011)은 고등학교 지리과 현장체험학습이 학업성취도와 획득한 지식의 분석, 해석, 적용 능력을 향상시켜주어 지리수업의 심화학습에 도움을 주고, 민길

홍(2008)은 서울지역의 선사시대 유적지를 활용한 중학교 역사 교육이 역사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는 학습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호중(2003)은 사회과와 연관된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지역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역사자원, 문화자원, 지역축제, 특산물, 환경관련시설, 사회단체, 공공시설, 자연환경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명기 등(2000)은 기관중심, 문화재중심, 시설중심, 자연중심으로 체험학습장을 분류하고 있다. 박은경(2008)은 중학교 교과 중 과학, 미술, 기술가정, 국어, 도덕, 환경, 사회과목이 식물과 산림환경을 주제로 한 현장체험학습과 연계될 수 있으며, 교과내용에 따라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홍기대(1999)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과 수업과 연계된 현장 체험활동의 유형을 자연체험활동, 사회체험활동, 역사문화체험활동, 자율적 체험활동으로 분류하여 적용하였으며, 현장 체험학습은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탐구하고 조사하여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이 시대의 교육이 추구하는 필연적인 학습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묘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망우리묘지공원을 대상으로 안장되어 있는 역사적 인물 중심의 역사체험학습을 실시한 김원중(2010)과 송현(2009)의 연구가 있다.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산책과 운동의 공간으로만 쓰이는 망우리묘지공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의 현장체험의 장소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 도시묘지의 기능 변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묘지란 그 형태와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시신의 처리의 장소이며 조상을 추모하는 기념물이고 조상숭배와 자손 발복을 기원하는 의례의 장소로 신성시해왔다(장철수, 1995; 박태호, 2006, 김유진 등 2007).

그런데 도시의 묘지는 현대에 와서 집값 하락의 요인, 환경위생과 도시경관을 해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묘지를 비롯한 장사시설의 유치를 반대하는 갈등현상을 낳게 되었다. 한편으로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장사시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묘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를 화장 중심으로 관련 제도도 변화하였다. 1970년대에 10.7%였던 화장률은 2010년에는 67.5%를 기록했으며, 특히 서울, 부산 등 7개 특별·광역시에는 75.5%로 대도시일수록 화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장묘문화의 변화로 매장 묘지의 수요는 감소하였으나, 화장 후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등 새로운 장사시설의 수요를 낳게 되었다.

묘지는 비선호시설이기는 하지만 인간 생애주기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며,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장사시설의 공급이 필요

하기 때문에 입지에 따르는 갈등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과 장묘문화의 개선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묘지를 도시녹지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주거단지 내에 입지하여 다른 도시공원과 마찬가지로 묘지의 기능을 유지한 채 휴식과 산책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연간 방문객이 150만 명에 달하는 페르라셰즈 묘지를 비롯한 몽파르나스, 몽마르트 묘지 등의 대형묘지들이 주요 관광지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묘지가 현재까지 도시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과거 프랑스가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 문중 중심의 묘지가 아닌 종교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묘지를 함께 사용했기 때문이다. 국교인 가톨릭의 성당이 위치한 마을이나 도시의 중심부에 자연스럽게 묘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묘지가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인식되게 된 것은 묘지가 도시기반시설이자 녹지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방문객에게는 문화, 역사의 현장, 지역주민들에게는 현장체험 학습의 장소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사회 묘지에 대한 사례를 현장조사와 인터넷 또는 문헌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해외사례로는 대규모의 공원과 같이 경관이 아름다운 묘지가 많고 이를 활용한 묘지해설 프로그램 진행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묘지를 선정하였다. 미국은 전쟁희생자들을 위한 국립묘지를 비롯하여 매장묘지가 발달한 나라의 하나이고 지역사회의 단체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사례를 수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묘지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조사하였으며 서울지역과 그 인근의 묘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각 사례별로 문헌과 인터넷의 자료를 통해 특정 주제와 상관 없이 묘지에서 행해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으며, 체험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개인적인 봉사활동은 제외하였다. 우리나라 도시묘지는 유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주체, 프로그램의 주제, 학습대상자 및 프로그램 운영시기 등을 조사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현장체험학습 자료의 유형

표 1. 현장체험학습장의 유형

요소	자원의 종류
학습장	기관중심(공공기관, 언론기관, 연구기관, 종교기관, 교통기관, 환경기관)
	문화재중심(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호국전적지)
	시설중심(문화시설, 복지시설, 산업시설, 체육시설, 공원시설, 놀이시설, 과학시설)
	자연중심(자연학습장, 자연환경)
	행사중심(문화제, 민속행사, 의식행사)
교과	국어, 사회, 과학, 실과, 외국어, 도덕
방법	참여봉사, 답사탐구, 견학관람, 실습창작

현장체험학습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원의 유형을 이명기 등(2000)은 다음과 같이 학습장소별, 교과별, 학습방법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2. 묘지의 유형

현장체험학습의 장소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묘지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성 및 관리주체에 따라, 개인, 가족, 종종, 법인 등 한 구역 내에 설치하는 분묘의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묘지를 관리대상이 아닌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현황과 가능성을 가진 장소라는 관점에서 다시 유형화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국립묘지, 공동묘지, 개인묘지를 포함한 가족묘지, 왕릉, 묘지공원으로 분류되었다.

3. 묘지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사례

표 2. 도시묘지의 유형

묘지 유형	운영 및 소유주체	묘지기능	대상자
국립묘지	국가, 보훈처	유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
공동묘지	지자체, 법인	유지	일반인
가족묘지 또는 개인묘지	개인, 종종, 문중	유지	묘지 소유자 등 소속원
왕릉	국가, 지자체, 문화재청	정지	역대 왕조의 왕과 왕비
묘지공원 ¹⁾	지자체	유지 또는 정지, 일부는 묘지 기능 없음	일반인

1) 미국

아메리카대륙 개척시기부터 많은 전쟁을 겪어 온 미국은 집단묘지가 발달하였다. 미국도 물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유지에 묘지를 갖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개 지역 내에 묘지를 이용하거나 국립묘지를 이용하고 있다. 1800년대 중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묘지 부족과 위생을 위해서 전원묘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 매사추세츠 원예협회, 조경가와 함께 묘지를 정원과 같이 아름답게 조성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비위생적이고 오염된 환경과 대비된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묘지는 그 어떤 시설보다도 쾌적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공공의 장소가 되었으며 이들 묘지는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었다. 그리고 묘지는 역사와 문화, 생태와 미술 등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자원이 풍부한 장소가 되었다. 미국의 묘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특정한 묘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지역의 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 내에 있는 묘지에서 그 묘지가 갖고 있는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과거 유명한 인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인구통계학으로 시대별 인구의 수명과 인구의 구성, 묘비의 문학적인 내용, 비석의 양식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개체군생태학, 문학, 건축, 미술까지도 아우르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한국

우리나라 묘지에서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은 미국과 달리 대부분 학습장소인 묘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의하거나 특정한 묘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국립묘지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묘지는 국민적인 추모의 대상이 영면하고 있는 국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역이며, 역사문화공간이다(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09). 국립묘지에서는 과거 호국과 안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왔으나 현재는 역사, 문화,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2) 왕릉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역사적인 장소인 조선왕릉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왕릉터를 둘러싸고 있는 숲이 울창하여 역사적인 해설과 함께 숲생태를 학습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자연친화 체험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3) 묘지공원

도시공원의 한 유형인 묘지공원 중 망우리묘지공원은 서울시

의 시립묘지이다. 그러나 만장되어 더 이상 매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곳은 독립운동가와 문학가의 묘지로 유명하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곳이다.

서울외국인묘지공원은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에 의해 조성된 외국인묘역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사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장소이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양식의 묘역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자원활동가에 의해 역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육신역사공원은 현재는 숲해설을 함께 진행하는 역사적인 장소이며, 어린이들의 예절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4. 묘지의 현장체험학습 자원 분류

본 연구 결과 묘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묘지의 유형별로 예측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다양하고 학습자 주도적인 교육을 위해 활용가능한 자원의 종류를 도출하여 이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체험학습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원의 유형분류에 따라 도시공원과 묘지가 갖고 있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비교해 본 결과 묘지에서 활용가능한 자원의 종류가 기타 다른 도시공원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역사, 문화, 체육, 생태공원 및 근린공원도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손색이 없으나 묘지가 가지는 자연적인 요소와 인문적인 요소를 고루 활용한다면 어떤 현장체험학습장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현재는 전혀 현장체험학습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공동묘지의 경우에 미국의 사례와 같이 묘지의 리모델링을 통해 얼마든지 풍부한 자원을 갖춘 훌륭한 도시 내 현장체험학습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묘지는 지역 내 현장체험학습의 장소로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도시는 더 풍부한 교육자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묘지가 가진 현장체험학습의 자원은 교과별로는 사회, 역사, 도덕, 생태, 환경, 통계, 미술²⁾ 교육이 가능하고, 학습장별로는 문화재중심, 시설중심, 자연중심, 행사중심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습방법별로는 참여봉사, 답사탐구, 견학관람, 실습창작 모두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도시 내에서 다른 어느 학습장보다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역사회 내의 묘지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현장체험학습이 활발한 것은 묘지를 정원이나 공원과 같이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묘지는 현재의 배치, 형식, 경관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기 쉽지 않으며 기피시설,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타파할 수 있는 묘지의 조성으로 장묘문화를 변화시키고 묘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때 더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주 1. 묘지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공원의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세분한 주제공원 중 하나로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에도 묘지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나 법인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시설로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지자체 주민들을 위한 집단 묘지를 묘지공원으로 결정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묘지가 더 이상의 매장 여력이 없어 묘지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묘지의 기능이 아예 전무한 경우도 있다. 최근 조성된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은 도시공원법상 묘지공원으로 시설결정되었지만 장사법에 따른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이 없는 화장시설만 있는 공원이므로 묘지공원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 주 2. 사육신역사공원은 묘지공원은 아니지만 도시공원의 하나로 사육신이 묘역이 조성된 곳이고 사육신묘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이다.
- 주 3. 미국에서는 묘지의 조형물과 비석으로 미술관련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획일적인 디자인을 벗어난 개성을 살린 묘지의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교육이 될 것이다.

인용문헌

1.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2. 김성경(2004) 도시하천을 활용한 현장학습 적용: 서울 양재천을 사례로. 한국국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원중(2010) 망우리 공원묘지와 연계한 역사 수업 지도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호중(2003) 사회과 현장체험 학습과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민길홍(2008) 중학교 역사교육에서의 현장체험학습 활용방안: 서울시역 선사시대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박은경(2010) 중학교 교과과정 분석을 통한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박재영(2004) 지리교육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환경교육의 실천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변성우(2010) 현장학습 장소로서의 지역하천 탐구: 홍제천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송현(2009) 망우리 공원묘지의 역사문화체험학습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이명기, 홍재호, 현승록, 이달우, 강원모(2000) 지역사회내의 현장 체험 학습장 활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연구 16: 53-91.
11. 정재승(2011) 고등학교 지리과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학교교육연구 6(2): 71-97.
12. 한국장묘문화개혁국민협의회(2009) 국립묘지 종합 발전방안 연구.
13. 홍기대(1999) 초등 사회과 지역조사 활동을 통한 현장 체험학습 지도. 사회과교육 32: 257-281.